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얼굴, 피부, 몸매)와
자아존중감,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진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경연* · 한보현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정화예술대학 미용예술학부

**Research on Correlations Between the Appearance
Satisfaction Level(Face, Skin and Body), Self-esteem and
the Feeling of Happin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High School Students in Jinju Region

Ha Kyungyun* · Han Bohyun

Dept. of Beauty Desig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ept. of Beauty Arts, Jeong Hwa Arts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the feeling of happines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teenager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appearance satisfaction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self-esteem and the feelings of happiness for adolescence.

Teenage students who attend vocational schools get more Allowances than students who attend general high schools, and those who have parents with lower education level also get more Allowances. But the higher the economic standard and grades the students have, the more self-esteem and the feelings of happiness they possess. Thus, the students who attend general high schools have higher self-esteems and feelings of happiness than those

in vocational schools. Additionally, the students who have higher economic standards and parents with better education levels show more appearance satisfactions for their face, skin and body. Therefore, the level of appearanc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school, economic standards, amount of Allowances and parents' education level i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can also affect the self-esteem and the feelings of happiness. Teenagers' appearance satisfac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self-esteem and the feeling of happiness.

Key words : adolescence(청소년기), appearance satisfaction(외모만족도), demographic characteristics(인구통계적특성), feeling of happiness(행복감), self-esteem(자아존중감)

I. 서론

아름다운 외모는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서로서,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버린 요즘,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형수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H. Lee, 2013).

청소년기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기준에 따라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확립되지 않은 자아정체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하기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왜곡된 외모주의에 휩쓸리기 쉽다(Seong, 2008). 실제 2013학년도 리서치 사이트에서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겨울방학에 외모를 바꾸겠다'라는 답변이 1위로 나타났다으며, 그 중 가장 받고 싶은 성형수술 부위는 눈 성형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Hyowan Kim, 2012). 이와 같이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문화적 관념이 형성되면서(H. Shin & Cheon, 2008),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자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외모комплек스는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A. Lee, 2007),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할수록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러한 부정적 사고는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

적응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Jang & Song, 2004; Eungyoung Kim, 2005).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은 행복감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모만족 요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자료 개발 및 미용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2.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다.
3.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appearance satisfaction)란 개인이 자

신의 신체나 기능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태도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있어 주체성, 자존심, 자기 가치의 근본을 말한다(G. Shin, 2003).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외모만족도는 이상적인 외모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G. Song & Kim, 20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신체의 체형 및 체중에 따른 외모만족도가 낮았는데, Goo and Lee(1994)는 여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여학생이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isook Lee and Kim(2000)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더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신체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신체 부위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A. Ko and Kim(1996)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반신, 전신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Shim and Kim(2008)는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를 변화시켜 외모를 변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고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눈에 대한 외모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상적 모습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J. Hong(2002)은 남녀학생 모두 자신의 신체 중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몸무게, 키 등에서 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머리카락, 피부, 얼굴의 눈, 코, 입 등의 부분에서는 중간 이상의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0)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신체가 불안할 때 외모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모두 사회계층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외모만족 수준

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J. Kim and Kim(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 및 경제수준, 나이, 학교유형, 신체총실지수 등이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체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Hyejung Kim(2004)은 신체 특성별로는 키와 몸무게의 비례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직업, 사회계층이 외모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피부상태와 근육질의 정도는 가정의 총 월수입이 많고 상류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 부위별로는 얼굴생김새, 눈, 코, 입의 조화, 피부상태, 머리카락 등을 포함하는 얼굴부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전체 신체부위 중 얼굴이 타인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학교유형별에 따른 선행연구에서 G. Lee(1998)는 여고, 실업계 고교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계고교가 인문계 고교보다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Jang(2004)은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만족도의 수준이 남자고등학교, 남녀공학, 여자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학생들만 모여 있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타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신체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는 신체, 체형, 신체부위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체만족 수준은 사회계층 및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생활수준이나 학교성적이 외모만족 수준에 영향이 있으며, 이러한 외모만족수준이 청소년들의 자아형성 과정에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견해를 뜻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여부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G. Jeon, 1984).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정도 즉 자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좋아하며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모든 일에 활동적이고 자기표현을 잘하며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소심하고 억압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Mija Lee, 2004).

최근 들어 사회전반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는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신과 사고,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Cha, 2013).

선행연구에서 Im(2011)은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학교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만족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외모와 신체에 대한 자신감 상실은 학교생활에서 또래집단 내의 친밀감 형성에 문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또래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적대적 태도 등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Euicheol Kim, 2004). I. Lee and Lee(2008)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일반적자아존중감 및 긍정적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자아존중감은 여학생 집단과 형제가 있는 집단이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교생활부적응에 자아존중감 및 외모만족 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Shim and Kim(2008)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외모에 대한 자부심, 용돈, 외모변화욕구,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화장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 학교성적, 얼굴형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화장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Jang and Song(2004)은 얼굴만족도, 전신만족도, 상반신만족도, 하반신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에 따른 외모만족이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주장과 함께 대인관계도 원활하며 지도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Jang & Song, 2004; J. Ko, Jin, & Shim, 2000).

따라서 청소년들의 외모만족 수준이 사회활동, 교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에도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 내의 소속과 관계 및 지지도가 중요하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높고, 학교생활에서도 적응과 교우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행복감

행복감이란 즐거움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심리적 안녕 상태를 의미하는데,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Padilla & Grant, 1985).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개인이나 사회가 보는 시각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편안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건강 등 일상생활에 대한 행복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Cho, 2009).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에서 유쾌한 순간이 많을수록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생활에서의 질 또는 일에 대한 만족정도, 수입정도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행복은 경험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이 깊으며,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수록 행복감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Gang, 2012). S. Kim and Baek(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은 경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감, 안전,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 등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만족이 행복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E. Park, 2003; G. Hong, 2006)에서 살펴보면 행복감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타인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것 보다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H. Park, 2010). Gong(2009)의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성향이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줄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Jeong(2013)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불만 때문에 행복감이 낮아지므로 외모불만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모불만으로 인해 행복감이 낮게 나타나는 학생들의 경우 매개 변인인 자아존중감을 높여 준다면 행복감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Euicheol Kim and Park(200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 및 인간관계가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위 사람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행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Gook, 2001). D. Jeon(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행복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사회적자아와 가정적자아, 학업적자아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많은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지 않은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 관계 및 적응력, 학업성취도에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법이었으며, 설문지의 질문 구성은 외모만족, 자아존중감, 행복감,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외모만족 문항은 얼굴, 피부, 몸매 등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얼굴은 이마, 얼굴윤곽, 눈, 코, 입, 치아 등 6문항으로, 피부는 피부트러블, 피부색, 색소침착 등 3문항, 몸매는 몸매라인, 어깨, 가슴, 팔, 다리, 배, 허리, 엉덩이, 종아리, 키, 몸무게 등 11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외모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Ha and Han(2013)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α 신뢰도 계수는 .78, .88, .90이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자신의 얼굴, 피부, 몸매에 더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 중요성 등 자신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Coopersmith(1967)의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 대상자에 부합하는 10문항을 선택하였다(Table 2). 10개 문항의 α 신뢰도는 .82이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에 관한 내용으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Euicheol Kim and Park(2004), Jeong(2013)의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 대상자에 부합하는 10문항을 선택하였다(Table 3). 10개 문항의 α 신뢰도는 .89이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돈, 아버지·어머니학력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Item for Appearance Satisfaction

Measurement item	
Face	forehead
	the contour of face(the shape of jaws, face size)
	nose
	eye
	lips
	teeth(bimaxillary protrusion, orthodontic treatment etc.)
Skin	skin condition(acne etc.)
	skin color(fairness)
	pigmentations(dark circle, nevus etc.)
Body Size	body shape
	legs(length, thickness)
	height
	arms(length and thickness)
	underbelly
	butt
	calves
	chest

Table 2. Measurement Item for Self-esteem

No.	Measurement item
1	I feel like I have good merits.
2	Sometimes I think I'm not competent at all.
3	I have a positive attitude about myself.
4	Sometimes I feel useless.
5	I almost don't have anything to feel proud of.
6	I feel less valuable than others.
7	Generally, I feel like a failure.
8	I can do anything like anyone else.
9	Overall, I am satisfied with myself.
10	I hope to respect myself more.

Table 3. Measurement Item for Feelings of Euphoria

No.	Measurement item
1	I have good living conditions.
2	I am satisfied with my life.
3	I am content with my family relationships.
4	I am pleased with the levels of expenditure.
5	I feel happiness throughout my life.
6	I am living better than my neighborhood.
7	If I were reborn, I would still want to be the present me.
8	I keep my body in great shape.
9	I live very happily.
10	I am content with my present life.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남 진주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 전문계 고교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기 중 외모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인 남녀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391명(남자: 178명, 여자: 213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용돈 5만원 이하 166(42.5%),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42(36.3%), 10만원 이상이 83(21.2%)이었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아버지학력 전문대졸 이하 200(51.2%), 전문대졸 이상 191(48.8%) 어머니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247(63.2%), 전문대졸 이상이 144(36.8%)이었으며, 경제수준은 상 35(9.0%), 중 307(78.5), 하 49(12.5%), 학교유형은 인문계 남자고 120(30.7%), 인문계 여자고 115(29.4%), 전문계 여자고 59(15.1%), 전문계 종합고 97(24.8%), 성적 상 55(14.1%), 중 212(54.5%), 하 124(31.4%)이었다.

Table 4. The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9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ppearance Satisfaction		
		Face	Skin	Body
Type of School	Academic Boys High School(n=120)	2.78(b)	2.63(ab)	2.31(b)
	Academic Girls High School (n=115)	3.03(a)	2.53(ab)	2.55(a)
	Vocational Girls(n=59)	2.61(b)	2.76(a)	2.26(b)
	Vocational General (Co-ed)(n=97)	2.69(b)	2.46(b)	2.19(b)
	F	6.11**	2.32*	3.92**
Grades	High(n=53)	2.87(a)	2.46(b)	2.41
	Mid(n=212)	2.89(a)	2.71(a)	2.36
	Low(n=124)	2.63(b)	2.46(b)	2.27
	F	5.15**	3.49*	.640
Economic Standard	High(n=35)	3.00	2.84	2.65(a)
	Mid(n=307)	2.79	2.59	2.33(b)
	Low(n=49)	2.73	2.56	2.23(b)
	F	1.55	1.39	2.92*
Allowances	Less than ₩50,000(n=166)	2.73(b)	2.52	2.24
	More than ₩50,000~ Less than ₩100,000(n=142)	2.81(ab)	2.64	2.43
	More than ₩100,000 (n=83)	2.97(a)	2.75	2.41
	F	2.96*	2.05	2.40
Fa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00)	2.74	2.57	2.32
	Above junior College(n=191)	2.87	2.66	2.37
	t	-1.72	-1.09	-.636
Mo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47)	2.75	2.56	2.35
	Above junior College(n=144)	2.90	2.70	2.34
	t	-1.96	-1.64	.042

*p<.05, **p<.01, letters a, b ar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α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를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유형은 얼굴, 몸매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얼굴, 몸매 만족도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남자고, 전문계여자고, 전문계 종합고 보다 얼굴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만족도는 전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남자고, 인문계 여자고, 전문계 종합고등학교 학생보다 피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얼굴과 피부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얼굴만족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얼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부만족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적이 중의 수준인 집단이 피부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몸매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몸매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매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돈에 따라서는 얼굴만족도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10만원 이상의 집단이 10만원 이하의 집단에 비해 얼굴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돈 수준이 얼굴관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고교가 인문계 고교보다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G. Lee(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만족도의 수준이 남자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난 Jang and Song(2004)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은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돈, 부모의 학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학교유형에서 $p <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행복감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은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여자고, 전문계여자고, 전문계 종합고 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은 인문계 남자·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계여자고와 종합고 학생들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경제수준, 용돈, 어머니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행복감은 학교유형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인문계남자고·여자고 학생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행복감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성적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적수준이 상, 중의 집단이 하의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행복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수준이 상의 집단이 중, 하의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Self-esteem and Feeling of Happiness (n=39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esteem, Feeling of Happiness	Self-esteem	Feeling of Happiness
Type of School	Boys Academic High School(n=120)		3.11(a)	3.00(a)
	Girls Academic High school(n=115)		3.04(ab)	3.14(a)
	Girls Vocational High school(n=59)		2.98(b)	2.64(b)
	General Vocational School (Co-ed)(n=97)		2.93(b)	2.81(b)
	F		3.37*	9.73**
Grades	High(n=53)		2.99	3.07(a)
	Mid(n=212)		3.05	3.02(a)
	Low(n=124)		3.02	2.73(b)
	F		.314	9.31**
Economic Standard	High(n=35)		3.00	3.41(a)
	Mid(n=307)		2.79	2.94(b)
	Low(n=49)		2.73	2.62(c)
	F		.977	15.19**
Allowances	Less than ₩ 50,000 (n=166)		3.06	2.87(b)
	More than ₩ 50,000~Less than ₩ 100,000 (n=142)		3.03	2.91(b)
	More than ₩ 100,000 (n=83)		2.96	3.12(a)
	F		1.49	4.16*
Fa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00)		3.02	2.81
	Above Junior College(n=191)		3.03	3.08
	t		-.341	-4.13**
Mo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47)		3.04	2.84
	Above Junior College(n=144)		3.00	3.11
	t		.830	-3.74**

*p<.05, **p<.01, letters a, b are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5)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용돈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10만원 이상이 10만원 이하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용돈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전문대 이하의 학력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 I. Lee and Lee(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행복감은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경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감, 안전,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 등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만족이 행복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Euicheol Kim & Park, 2004; D. Jeon, 2011) 결과를 지지하였다.

3. 각 변인과의 인과관계

1) 각 변인간의 단순상관관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 Table 7, Table 8과 같다.

Table 6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교유형은 용돈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학력, 자아존중감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전문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용돈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용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경제수준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용돈, 어머니학력, 행복감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수준이 높을수록 용돈수준, 어머니학력, 행복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은 용돈, 어머니학력, 얼굴, 행복감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모만족도의 피부와 몸매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용돈수준이 낮고, 어머니학력과 행복감, 얼굴에 대한 만족 수준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와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용돈은 아버지학력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행복감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외모만족도의 얼굴, 피부, 몸매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용돈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높고, 용돈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Feeling of Happiness

(n=391)

Variables		type of School	Grades	Economic Stabdar	Allowances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Demographic Variables	Grades	-.051					
	Economic Standard	.077	.168**				
	Allowances	.180**	-.108**	-.144**			
	Father's Education	-.164**	-.061	-.164**	-.188**		
	Mother's Education	-.139**	-.067**	-.139**	.045	.516**	
Appearance Satisfaction	Face	.017	-.138**	-.145**	.116*	.107*	.099
	Skin	-.038	-.079	-.109*	.120*	.108*	.107*
	Body	-.003	-.057	-.121*	.103*	.058	.017
Self-esteem		-.137**	.002	-.070	-.043	.055	.013
Feeling of Happiness		-.031	-.196**	-.266**	.133**	.206**	.187**

* $p < .05$, ** $p < .01$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의 얼굴, 피부, 몸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학력은 어머니학력, 행복감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모만족도의 얼굴, 피부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버지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학력이 높았으며, 어머니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고, 아버지학력이 높을수록 얼굴, 피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학력은 피부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행복감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고, 피부 만족도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변인들간의 회귀분석 및 인과모형

각 변인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 Table 8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beta 계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성별과 학교유형의 경우 가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학교유형에서는 전문계고와 전문계 종합고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Used in Causal Model I

(n=391)

Dependent Variables	<i>b</i>	β	<i>t</i>	overall <i>F</i>
DV: Face				
Self-esteem	.003	.002	.040	$R^2=.24$ $F=6.78^{**}$ $DW=1.89$
Feeling of Happiness	.530	.494	9.64**	
Type of School	.023	.037	.769	
Grades	-.047	-.044	-.906	
Economic Standard	.044	.086	1.59	
Allowances	.053	.070	1.42	
Father's Education	-.026	-.026	-.437	
Mother's Education	.037	.037	.617	
DV: Skin				
Self-esteem	-.154	-.079	-1.54	$R^2=.91$ $F=36.9^{**}$ $DW=1.94$
Feeling of Happiness	.372	.293	5.30**	
Type of School	-.027	-.037	-.711	
Grades	-.033	-.026	-.501	
Economic Standard	.034	.056	.959*	
Allowances	.089	.099	1.87*	
Father's Education	.019	.016	.256	
Mother's Education	.039	.033	.514	
DV: Body				
Self-esteem	-.254	-.132	-2.59**	$R^2=.13$ $F=26.47^{**}$ $DW=1.95$
Feeling of Happiness	.429	.341	6.26**	
Type of School	-.017	-.024	-.467	
Grades	.006	.005	.099	
Economic Standard	.000	-.001	-.009	
Allowances	.046	.053	1.01	
Father's Education	.025	.021	.335	
Mother's Education	-.100	-.085	-1.34	

* $p<.05$, ** $p<.01$ DV= Dependent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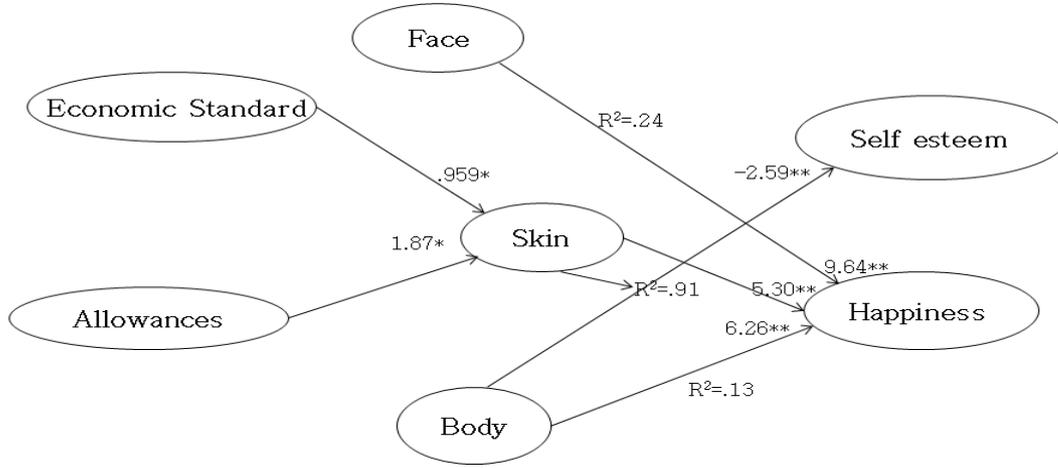


Figure 1. Causal Model I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Used in Causal Model II

(n=391)

변인	<i>b</i>	β	<i>t</i>	overall <i>F</i>
DV: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420	.417	.892*	<i>R</i> ² =.39 <i>F</i> =1.79* <i>DW</i> =1.90
Feeling of Happiness	.081	.124	1.93*	
Type of School	-.043	-.117	-2.18*	
Grades	-.010	-.016	-.301	
Economic Standard	-.121	-.253	-5.29	
Allowances	-.046	-.101	-1.89	
Father's Education	.058	.096	1.46	
Mother's Education	-.088	-.147	-2.24	
DV: Feeling of Happiness				
Appearance Satisfaction	.420	.415	9.32**	<i>R</i> ² =.34 <i>F</i> =22.3** <i>DW</i> =1.94
Self-esteem	.130	.085	1.93*	
Type of School	-.002	-.003	-.063	
Grades	-.114	-.112	-2.30*	
Economic Standard	-.145	-.306	-5.81**	
Allowances	.031	.044	.886	
Father's Education	.095	.101	1.67*	
Mother's Education	.051	.054	.905	

p*<.05, *p*<.01 DV= Dependent Variables

1점, 인문계 여고와 남고를 0점으로 부여하였다. 학교성적과 경제수준은 상, 중을 1점, 하 0점으로 하였으며, 용돈은 10만원이하 1점, 10만원 이상 0점으로 하였으며, 부모의 학력은 전문대이상 1점, 전문대이하를 0점으로 하였다.

Table 7에서 얼굴, 피부, 몸매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얼굴은 행복감(beta=.494, t=9.64**,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1개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24%이었으며, 얼굴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다. 즉 얼굴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얼굴이 행복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학교유형, 학교성적, 경제수준, 용돈, 어머니학력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부는 행복감(beta=.293, t=5.30**, **p<.01), 경제수준(beta=.056, t=.959*, *p<.05), 용돈(beta=.099, t=1.87*, *p<.05)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91%로 나타났다. 즉 행복감이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용돈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학교유형, 학교성적, 어머니학력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몸매는 자아존중감(beta=-.132, t=-2.59**, *p<.01), 행복감(beta=.341, t=6.26**,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2개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3%였다. 몸매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다. 즉 몸매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행복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igure 1). 이것은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기준에 의한 이상적인 몸매로 가꾸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Goo and Lee(1994), Misook Lee and Kim(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Table 8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이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모만족도(beta=.417, t=.892*, *p<.05), 행복감(beta=.124, t=1.93*, *p<.05), 학교유형(beta=-.117, t=-2.18*, *p<.05)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39%이었다. 전문계 학생 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행복감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유형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행복감이 외모만족도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교성적, 경제수준, 용돈, 아버지 어머니학력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외모만족도(beta=.415, t=9.32**, **p<.01), 자아존중감(beta=.085, t=1.93*, *p<.05), 학교성적(beta=-.112, t=-2.30*, *p<.05), 경제수준(beta=-.306, t=-5.81**, **p<.01), 아버지학력(beta=.101, t=1.67*, *p<.05)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5개 변인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학교유형, 용돈, 어머니 학력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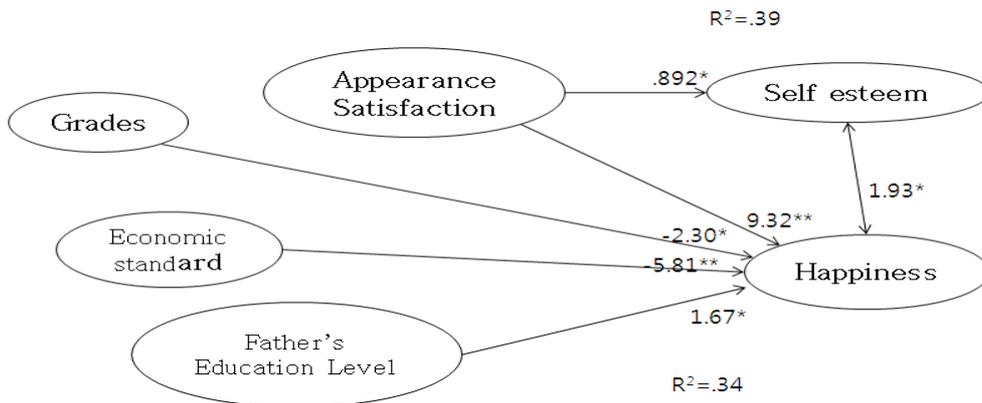


Figure 2. Causal Model II

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외모만족도가 높고, 아버지학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성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Figure 2). 이것은 자아존중감을 높여 준다면 행복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 E. Jeong(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행복감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사회적자아와 가정적자아, 학업적자아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한 D. Jeon(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얼굴, 피부, 몸매 등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얼굴, 피부에 대한 만족도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모만족도 요인 중 얼굴, 피부보다는 몸매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매를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평가기준에 맞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행복감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이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유형에서 얼굴은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남자고, 전문계여자고, 전문계 종합고보다 얼굴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만족도는 전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남자고, 인문계 여자고, 전문계 종합고등학교 학생보다 피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는 얼굴과 피부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성적이 중의 수준인 집단이 피부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몸매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용돈은 10만원 이상의 집단이 10만원 이하의 집단에 비해 얼굴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았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돈, 부모의 학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여자고, 전문계여자고, 전문계 종합고 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은 인문계 남자·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계여자고와 종합고 학생들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 중의 집단이 하의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상의 집단이 중, 하의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에 따라서는 10만원 이상이 10만원 이하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전문대 이하의 학력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경제수준, 용돈, 어머니학력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외모만족도 요인인 얼굴, 피부, 몸매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얼굴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피부는 행복감, 경제수준, 용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몸매는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이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외모만족도, 행복감, 학교유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행복감은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성적, 경제수준, 아버지학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모만족도 요인 중 얼굴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피부는 경제수준 및 용돈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고 행복감은 높았다. 또한

학교유형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행복감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외모만족도, 행복감, 학교유형, 아버지학력은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낮아지고 결론적으로 행복감 또한 낮아지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복감의 경우, 외모만족도가 낮을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면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즉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수준 또한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있어 행복감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들의 행복 기준 판단을 얼굴, 학교, 피부, 외모 등의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외모만족도 향상보다는 자아성취감, 자기개발, 인성함양 등의 내적인 요소의 고취를 통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 확립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사회, 학교, 가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으로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으로 인한 소외청소년의 비율을 감소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연구에서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으로 조사대상자의 지역이 한정되었다는 점과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측정도구가 제한된 문장으로 조사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모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얼굴, 피부, 몸매 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보다 구체화 시켜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모요인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a, H. (2013, April 19). Obsession with looks, negative impact on teenagers values. Segyeilbo. Retrieved from <http://www.segye.com>.
- Cho, E. (2009). The relationship among the leisure activities lifestyle and quality of life of the aged,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4, 733-74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mpany.
- Gang, Y. (2012). Exploring the constructs of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1(2), 219-235.
- Gong, Y. (2009). *The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f as media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Goo, J., & Lee, M. (1994). A study on the appearance satisfaction, sociality, and achievement motive of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5), 153-163.
- Gook, S.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the quality of life model of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il dissertation). Jeonbuk University, Jeonju, Korea.
- Ha, K., & Han, B. (2013). The influence on happiness in the youth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Proceedings of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pp. 27-30). Seoul: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 Hong, G. (2006).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MI on body image and body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 Industry*, 8(1), 48-54.
- Hong, J. (2002). *A study on th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king behavior of boys &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gi University, Suwon, Korea.
- Im, J. (2011). *A study on female students' satisfactory level of outlook 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S. (2004).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115-133.
- Jang, S., & Song, M. (2004).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115-133.
- Jeon, D. (2011).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 on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h University, Busan, Korea.
- Jeon, G. (1984). *The study on child's sex role identity,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oungbuk University, Daegu, Korea.
- Jeong, E. (2013). *Media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oncheon University, Chooncheon, Korea.
- Kim, E. [Euicheol], & Park, Y. (2004).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973-1002.
- Kim, E. [Eungyoung].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physic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school mal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oncheon University, Chooncheon, Korea.
- Kim, H. [Hyowan]. (2012, November 27). Plastic surgery booms with winter break. SportsSeoul, Retrieved from <http://news.sportsseoul.com>
- Kim, H. [HyeJung]. (2004). *Appearance-managemen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and bo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 Kim, Y. (2001). A study on the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55-73.
- Kim, S., & Baek, H. (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 Ko, A., & Kim, Y. (1996). Impact research on self centered, sense of identity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dress up behavior of teenag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667-681.
- Ko, J., Jin, B., & Shim, H. (2000).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ge and residence,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4), 475-486.
- Lee, A.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complex,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Lee, G. (1998).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sociality,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Sangmyung University*, 11, 1-18.

- Lee, H. (2013, April 25). Dissatisfied with appearance...BDD syndrome increases. *Sports Korea*. Retrieved from <http://sports.hankooki.com>.
- Lee, I., & Lee, K. (2008). The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1(1) 11-22.
- Lee, M. [Misook], & Kim, J. (2000). The effect of TV media on adolescent` body images.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 39-39.
- Lee, M. [Mija]. (2004). *The effects of the group diary writing activity on middle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Suncheon, Korea.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0). *The effect of physical self-efficacy focus on teenagers*. Retrieved from <http://www.nypi.re.kr>
- Padilla, G. U., & Grant, M. M. (1985). Quality of life a cancer outcome variable, *Americans Nursing*, 45-47.
- Park, E. (2003). Korean and U. S. female college students, cross-cultural study of the effect of body-esteem to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Psychology*, 22(2), 35-56.
- Park, H. (2010). *Influence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happines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personality infer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University of Princeton Press.
- Seong, M. (2008). *Impacts from appearance satisfaction promotion program have over self esteem and personal relationship of female junior high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uwon, Korea.
- Shin, G. (2003). *Study on relation of students' physical satisfaction with self-esteem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oungwon University, Chuncheon, Korea.
- Shin, H., & Cheon, H. (2008). Impacts from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est on appearance and appearance complex of junior high student have ove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onsumer Policy Education Research*, 1(2), 1-17.
- Shim, J., & Kim,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satisfaction/self-esteem of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use of make-up.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58(4), 128-138.
- Song, G., & Kim, J. (2005). The effects of the body image, body distortion and the self - esteem on the clothing behavio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7(5), 740-751.

접수일(2013년 8월 5일)

수정일(1차: 2013년 11월 21일, 2차: 201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2013년 12월 6일)